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14 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2020 년 COVID-19 감염 확산사태로 인한 팬데믹선언 이후의 세계는 경험한 적이 없는 국제교류의 단절이 진행 중입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그 부모세대 그리고 그 조부모세대까지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일것입니다. 외교,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인간, 사물, 자본의 월경을 전제로 이루어지던 다양한 교류가 봉쇄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국제 분업의 진전과 부존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한 국제무역이 격감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보다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정치적 불안을 낳았고, 정치적 갈등과 내전의 심화는 난민을 양산했다. 예전부터 예견됐던 언택트시대는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와 사회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급격한 사회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거부 또는 저항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부적응자들은 격차사회의 심연에 내몰리기도 됩니다. 이 모두가 국제교류의 단절이 낳은 시대상이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양상과 역할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COVID-19 이후 전개될 국제교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첫째,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의 역사적 사례를 발굴하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 3 국 사이의 교류에서 크고 작은 족적을 남긴 인물과 사건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그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19 세기 중반 이후 전개되어 온 동서양의 접촉과 영향이 포함되어야 동아시아의 국제교류가 보다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현상을 검토하고 COVID-19 이후 전개될 바람직한 국제교류의 모습을 전망했으면 합니다. COVID-19 이후 동아시아인들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연속과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절이 심할 경우에는 리셋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국제교류의 모습을 재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의 제 14 회 연차대회에서는 이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하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여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참가를 기대합니다.

연차대회 주제

팬데믹이 국제교류에 미친 영향의 역사적 검토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망

파널

1. 동아시아 감염증(COVID-19 포함)에 관한 역사적 사례
2. 팬데믹 후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전망
3. 지식환류의 세계사
4. 공중위생, 전염병, 제약과 문화교섭
5. 제국/민족/지역의 지식교섭
6. 언어/문학 역사 철학의 번역과 지식의 이전
7. 예술에 관한 문화교섭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문화교섭
9. 지역문화와 관광에서 보이는 문화교섭
10. 기타 동아시아문화교섭에 관련된 내용

회장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천관 (대학원동)
한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회의일정

연차대회 2022년 5월 8일~9일 또는 5월 15일~16일

신청마감 및 심사결과 발표일정

기조강연 및 일부 패널 세션, 온라인 패널 세션, 개인발표
※방역당국 지침에 의한 회의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참가비용

회의형식은 기조강연, 패널 세션, 개인발표, 대학원생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상기의 분과회 테마를 참고하기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및 발표 희망자는 별지 신청서 및 발표요지(400자 정도)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및 발표의 신청은 대회 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용

미정

참가·발표신청 접수처: 대회준비위원 sciea2022@outlook.com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14 회 대회준비위원회

주 임 김명수 (金明洙 평의원 계명대학교 준교수)

부주임 이병로 (李炳魯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학장)
김정규 (金楨圭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마키즈미 애츠코 (牧角悦子 화장 니쇼가쿠샤대학 분학부장)
우치다 케이치 (内田慶市 부회장 간사이대학외국어학부 교수)
후지타 타카오 (藤田高夫 평의원 간사이대학 문학부 교수)
타오 더민 (陶 德民 평의원 간사이대학 문학부 교수)
기무라 마사토 (木村昌人 평의원 간다외국어대학 연구원)

사무국 심 국위 (沈国威 학회사무국장 간사이대학외국어학부 교수)